

## 아름다웠던 원형을 지키며

옛 책 복원하는 용인대 박지선 교수

종이문화재의 보존 수리는 원래 배접 개념이었다. 망가진 부분에 종이 등을 덧대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제는 아름다웠던 옛 원형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박지선 교수(42, 용인대 문화재보존학과)는 문화재 보존을 단순한 기술로 여기는 풍토가 옛 책의 아름다움을 잃게 했다고 말한다. 재질이 뛰어난 우리 종이는 원형을 망가뜨려가며 투박하게 배접할 필요가 없다. 산성이 된 지질을 클리닝해 주고 떨어져 나간 부분을 보충하는 정도로 충분하다.

서울대 동양학과에서 석사를 마치고, 일본 교토박물관 문화재 보존수리소에서 8년을 보내면서 문화재를 만지는 것은 손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연구기간 10년을 약속하러던 박물관의 생각도 마찬가지로였다.



## “역동적인 사이버 출판매체 만들겠다”

사이버 북마켓 'DC50.com'의 강현근 대표

인터넷 서점시장에 '끼'와 '저돌성'으로 무장한 전사가 출현했다. 지난달 30일 본격서비스에 들어간 'DC50.com(Digital Community 50)'이 그것으로, 웹서점의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MBC프로덕션 차장, HBS제작부장을 역임한 강현근씨(46)가 수장인 이 사이트는 '핫미디어(hot media)'인 책에 '쿨미디어(cool media)'인 방송과 영상개념을 도입하겠다는 야심으로 출발했다.

“기본적으로 책은 정보의 덩어리입니다. 가장 다양하고 정제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책이라는 점에 착안해 사이버 북마켓에 뛰어들었습니다. 책은 정적 매체지만 멀티미디어적 기능을 접목시키면 동적인 매체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책을 단순히 읽을 뿐만 아니라 보고 들을 수 있는 역동적 매체로 바꾸어갈 것입니다.”

개점한 지 한달도 채 안됐지만 DC50.com만의 차별화 전략이 눈에 띈다. 신속한 택배시스템, 할인율, 세분



## 내용은 진지하게, 접근은 재미있게

김영사 <앗, ...> 시리즈 담당자 김희진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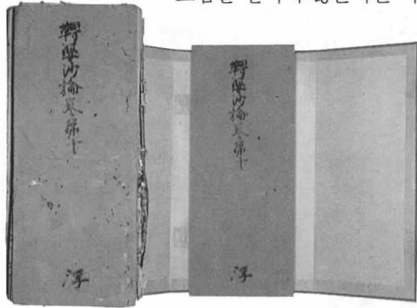
처음 《수학이 수군수군》, 《화학이 화끈화끈》 등의 <앗, 이렇게 재미있는 과학이> 시리즈를 내놓을 때 안팎으로 걱정이 컸다. 어린이 출판은 손익이 빨리 승부나지 않는 데다 새로 진입하기 어려운 장악된 시장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뜻밖에 '대박'이 났다. 과학시리즈 11권이 10만부 넘게 팔리면서 불과 몇 달새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것이다.

기획과 편집을 책임졌던 김희진씨는 책의 내용을 더 걱정했다. 그림은 물론 우스개소리까지 서구적이어서 과연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했던 것. 하지만 '좋다고 믿는 쪽으로 움직인다'는 평소 원칙을 지켰다. 바른 내용을 담기 위해 교육학 교수·교사 등 전문가의 철저한 감수를 거쳤고, 삽화의 말 풍선이나 상황도 우리 실정에 맞도록 재미있게 바꿨다.

단색 일러스트와 재생지로 책값을 낮추자 걱정은 더 커졌다. 하지만 사회에 환원한다고 생각하라는 박은주 사장의 독려가 큰 힘이 됐다. 책이 잘 팔린 덕분에 과학에 이어 <앗, 이건 예술이야>, <앗, 이렇게 짜릿한



**“중이문화재의 복원은 단순한 손기술이 아닌 마음이 담겨야 합니다. 아름다웠던 옛 원형을 되찾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고려말 조선초로 추정하는 절첩식 복원 전(왼쪽)과 후

“보존처리의 첫째는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듯 기법, 물감, 재질 등을 섬세하게 살피는 겁니다. 80년 처음으로 불국사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작업할 때 무게와 질량을 따져가며 두드리는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 살폈다. 그 모든 것을 제대로 알아야 배접할 종이를 원형 가깝게 만들 수 있다.

“여자라는 것, 일본에서 공부한 것을 처음에는 편견어린 눈으로 봤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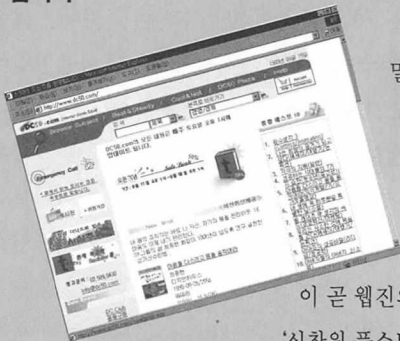
용인대에 갔을 때, “표주쟁이가 교수됐다”는 말이 공공연했다. 중국은 당나라 때부터 과자 먹은 손으로는 그림을 만지지 않는다는 식의 보존개념이 있었고, 유럽에서는 몇 백년 전통의 중요한 학문이건만 아직 우리

인식은 이렇다. 당연히 가장 중요한 문제랄 수 있는 사후 보존에 무심하다. “고서 귀중본은 철저히 보관하고 복제한 것을 전시하거나 이용해야” 한다는 것.

한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만큼 사후보관이 중요하다. 공부를 마치고 처음 10년 동안은 최고의 복원기술을 보여주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로부터 9년이 지난 지금 그 사이 얼마만큼 사람들의 눈이 높아지고 인식이 달라졌을까.

— 이현주 기자

**“DC50.com를 바탕으로 사이버상에 출판전문방송국을 개설해 50개의 개별 전문 사이버커뮤니티를 건설할 겁니다.”**



화된 도서정보 등은 기본이고 매주 업그레이드되는 기획기사, 9개 대분류 항목의 프론트 페이지에 실리는 시사논평 등 웹진 기능이 결합됐다. 웹PD개념을 도입한 것도 독특하다.

“방송사 PD와 마찬가지로 웹PD도 콘텐츠생산자입니다. 현재 사서출신 2명을 비롯해 7명의 웹PD들이 고급DB구축과 정보가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방송국 시스템을 도입해 동영상을 활용한 기획 취재와 화상인터뷰, 음성메일 등으로 TV보다 더 재미있는 매체로 꾸릴 것입니다.”

인터넷 웹서점에 진출한다고 했을 때, 모두 무모한 일이라고 말렸지만 돈키호테식 저돌성으로 밀어부쳤다. 생소한 분야로 진출했기 때문에 벽이 많았다. 출판전반에 대한 맥을 짚기 어려웠고 각 출판사들의 보수성도 완강했다. 구간도서의 공급이 어렵다는 점도 큰 문제점이었다. 결국 정보의 양보다는 질로서 승부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PD출신으로서 기획력과 추진력 그리고 시류를 읽는 안목 등이 중요한 자산이 됐다. 그는 웹PD들에게 소구력 높은 살아 있는 DB가 되려면 시대적 상황, 사회적 배경 등이 녹아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DB의 생명이 곧 웹진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DC50.com은 이달 초 투자유치 전략으로 법인화했고 업상의 변호사의 ‘신창원 폴스토리’를 독점 연재하고 있다. —박천홍 기자

**“〈앗, ...〉 시리즈가 공부와 관련돼 있고 근엄하지 않아서 마땅찮아 하는 사람도 많지만 고급지식을 수용하기 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출판물이 필요합니다.”**

스포츠가》 등을 내고, 대기중인 역사 분야 외에 인문학 전반의 입문서 〈앗, 이렇게 깊은 뜻이〉 등 모두 100권 정도를 내려고 한다.

이 시리즈가 ‘공부’와 관련돼 있고 ‘근엄’하지 않다고 마땅찮아 하는 사람도 많지만 고급지식을 수용하기 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출판물이 없다는 데 오히려 사명감을 느낀다. 기획과 편집 실무는 김희진씨를 포함해 단 두 사람이 맡고 있는데, 모두 발달한 상상력이 넘친다.

“기획회의가 ‘농담 따먹기식’이에요. 아이템, 제목 정하기, 내용의 이주 작은 부분까지 기상천외한 생각에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김희진씨가 출판사에 들어온 지는 1년 정도. 그전에는 케이블 TV에서 더빙을 진행했다. 아버지가 잠시 출판을 했고, 친오빠도 출판사 편집장이라 친밀감도 있지만 흘러가버리는 방송보다 오래 남는 출판이 훨씬 매력적이다. 요즘은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볼 그림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목이 ‘뽀스맨’이다.

— 이현주 기자